

1) 데칼로그 (4) 명의도용 (출애굽기 20:7)

① 설교요약본

a. 강원랜드 대표차

강원도 정선에는 국내 관광객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이 바로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갚지 못해 되찾지 못하게 된 차들을 전당포에서는 불법으로 시장에 유통하고, 이렇게 팔린 대표차가 범죄에 이용되면 원 차주는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도박으로 시작된 사소한 문제가 명의도용과 범죄라는 큰 일로 변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b.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아라!

앞서 나눈 이야기가 오늘 다룰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망령되게 부른다”는 표현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시대로부터 신의 이름에는 신의 권능이 담겨져 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종종 나쁜 일에 대해서도 신의 이름을 남용하곤 하였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거나, 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남을 속이거나, 혹은 마술 같은 미신적 행위에 신의 이름을 사용해 그 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 하나님의 이름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네티시 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이름들이 하나님이 밝히신 본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시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4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과 다른,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d.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이름은 그 대상을 정의내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 짓는다면 그것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세상의 정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용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석 목사님과 아우구스티누스는 멋진 해석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언어로도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 너희는 다만 나를 경험할 수 있을 뿐. 나느 숨기면서 드러내고, 드러내면서 숨기는 자다. 그러니 나를 송두리째 알 생각은 마라.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너희는 나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당신이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뿐, 결코 전부를 안다고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명명할 수 없는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e. 이름이 없는 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렇다면 명명할 수 없는 분의 이름인데 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셨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며, 찬양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높여 부르시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름없는 분의 이름을 부른 다른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그분을 함부로 부르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속 다윗의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